

기초자치 선거 정당공천 폐지되면 누가 유리할까

# 후보 난립때 인지도 높은 현역 절대 유리

## 지역 국회의원 '내천자'·기호 2번 후보도 이점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어떤 후보들이 유리할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된다. 우선 현역 단체장과 현역 기초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만큼 정치신인들에 비해 인지도도 높고,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피해 선거를 앞두고 민원현장 등 지

역구를 돌며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다 시정 또는 구정, 군정보고회 등을 갖고 그 동안의 치적을 홍보할 수도 있다. 기초의원들 또한, 의정보고회, 주민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부분이 정치 신인들에 비해 유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 현역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처럼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 유권자들도 공약 검증 보다는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경

력사항 등을 의존해 '깜깜이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신인들에 비해 얼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현역 프리미엄에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이 커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내천자'도 유리해질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으로 인한 '정치권 줄세우기 폐해' 등을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내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경우 '내천'이 이뤄지면, 보이지 않는 지역위원회의 조직의 힘이

발휘돼 내천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기호 선정에 따른 유휴리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의 기호가 그동안 줄곧 2번이었다는 점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은 후보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의원 공천이 폐지됐던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었다. 한편,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기로 했으며, 최근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도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던 만큼 의견타협을 어려운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지나 주, 나는 광주 남구청이 운영하는 '남구 열린 평생교육대학' 인문화 특강을 했다. 한반반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소설 속 다양한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이야기했다. 90세까지 사는 장수시대에, 의미 없이 소모적으로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모적인 삶이란 존재감 없이 그냥 물건이 닳아지듯 소멸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세상의 다양한 색깔들을 충분히 느끼고, 깨달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실적 삶에 동참하자고 강조하면서, 나는 내 친구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내 친구 아버지가 90세 생신을 맞았다. 아버지는 4남매가 정성껏 차린 생신상 앞에서 갑자기 방바닥을 치면서 "나는 헛살았다."하고 통탄했다. 자신들은 불효를 닦는 것으로 알고 용서를 빌었다. "네를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택시 운전을 해서 너 희들을 가르쳤다. 모두 결혼시켜 왔기

눈길을 끌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숲속 벤치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이곳에서는 콘서트와 작은 장터가 열리고, 작가회의 주최로 시낭송 행사도 가졌다. 나는 다시 푸른길에서 양림동 휴먼시아 길로 접어들었다. 김현승 시인이 살았던 집터도 들렀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주말마다 시를 써가지고 김현승 선생님 댁을 찾곤 했다. 등나무 밑에 앉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고 계셨던 선생님의 모습이며, 손수 끓여주신 커피를 늦게 접어 따라 막걸리 마시듯 했던 기억이 미처도록 그리웠다. 내 친구 아버지가 90세 생신 때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암을 앓던 그 시절, 이곳에 살면서 <장소리>, <철쭉제>, <겉에서 하늘까지>를 썼다. 아, 내 고향 같은 양림동. 광주문화 1번지 양림동이 새롭게 변하고 있었다. 젊은 날에 대한 회한 때문일까, 그리움 때문일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듯 자꾸 눈물이 나

## 광주 남구, 문화로 색칠하다

하게 되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60살에 택시 운전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난 30년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버지는 다음날부터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죽었다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를 쓰는 것으로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남구청의 열린 평생교육대학은 바로 어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번 1기에 102명이 수료했다. 강연장에는 '마을 공정여행기획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수강생들이 남구 안에 있는 역사 문화 유적들을 찾아 여행하는 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구민들이 자기 고장의 역사문화 현장 답사를 통해, 자긍심과 애乡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구나 싶었다. 최영호 구청장은 지난 2011년 남구가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었다면서, 2015년까지 214억을 들여 22개 문화 교육 특화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강의를 끝낸 나는 오랜만에 한가롭게 해할 부리미 백운광장에서 광주천까지 푸른 길을 걸었다. 철도 폐선을 이용한 푸른 길은 도시 숲속문화소통공간으로, 대인예술시장과 함께 요즘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천으로 가는 길에 작은 도서관이

리고 했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정음성 거리 전시관을 지나 계속 걸었다. 양림동 푸른길을 걷자니, 내가 13년 전에 <성자의 지팡이>라는 실명 소설을 썼던 오방 최홍중 목사와 서서평 간호사와 함께, 최근 <낮은 땅의 어머니>를 통해 더 가까워진 조아라 회장이 내게 할 말이 있는 듯 머릿속에서 계속 부스럭거렸다. 이 분들은 양림동에 살면서 광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서 빛나는 흔적들을 남겼다. 햇살이斜陽해서야 100년이 넘는 늙은 호랑가시나무 앞을 지나, 호남신학대학 구내에 세워진 김현승 시비 앞에서 "선생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시비에 새겨진 <눈물>을 읊조리고, 무등산이 가장 잘 보이는 시비 옆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색깔로 디자인 된 양림동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했다. 숲속에 도서관이 있고 전시회와 콘서트가 열리고, 역사의 흔적따라 푸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광주 남구가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문화가 밭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시대이다. 한 지역의 푸른 길은 도시 숲속문화소통공간으로, 대인예술시장과 함께 요즘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천으로 가는 길에 작은 도서관이



승촌보서 영산강 생태 교육. 광주 남구 수(수)생태마을을 문화 스토리텔링 활동가 40여명이 16일 승촌보 영산강문화관을 찾아 영산강의 역사와 생태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지역 사회재활시설 주먹구구 운영 市, 운영비 부적정 사용 등 위법·부당 54건 적발

광주지역 사회재활시설이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33곳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시설관리 및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5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재물관리 소홀 ▲남·여 화장실 미분리 ▲축지도(접자 안내도)와 유리창 안

전바 미설치 등이다. 시는 적발한 4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개선명령과 보조금 회수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된 11건은 자치구로 하여금 세부 확인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광주시 김에리 노인장애인 복지과장은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64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6·25사이버공격도 北 소행 추정" 미래부 "3·20테러와 수법 동일"

"3·20 사이버테러"에 이어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변조시키고 방송·신문사의 서버를 파괴한 '6·25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또다시 북한이 지목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부 과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6·25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해킹 수법이 3·20 사이버테러 등 과거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이버공격의 피해 장비와 공격 경유지 등에서 수집된 악성코드 82종과 PC 접속기록, 공격에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과거 북한의 대남해킹 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입찰행정 모범 광주시 TF 구성 업그레이드

전국 자치단체 중 입찰행정 모범 도시로 떠오른 광주시가 입찰행정 제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 17명이 참여한 입찰행정 제도 혁신 TF를 구성해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다음달 말까지 입찰행정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는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계약, 물품계약, 용역평가 등 입찰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를 혁신하고 공공, 민간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제도개선이 마련되면 10월 말까지 제도화해 업무에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입찰 때 예산과 달리 가격경가 비중을 늘리는 등 입찰행정을 개선해 14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상윤 시 건설행정과장은 16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가격경가 비중을 대폭 늘린 턴키입찰 제도 개선 건은 국토부와 제주도 등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범사례로 전과되고 있다"면서 "이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한 공정형 입찰제도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삼희 공인중개사

**부동산 빠른매매 ( ~ 50억가능)**

**급매매상담 (건물,상가,아파트,주택,기타)**

**법인소유부동산**

**지분부동산매매**

**미준공건물매매**

**경매진행중인물건**

**금융상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말소후 책임중개합니다.

**부동산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062)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배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 태영부동산공인중개사

**★매 매★**

- \* 영암 도포면 성신리(아산) 임야44,470㎡ 계획관리지역(과수원,전 개간지)매매가4억원
-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점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1576㎡ 매매가1억1천(병원적합)
-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231㎡ 매매가㎡당 4천5백원
-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원룸촌 나대지 407㎡ 3억 2천만원 (고시텔, 원룸신축적합)
- \* 화순읍 흥리 공인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 임대 2.3층 주택4곳 임대 (용8천 전1억2천만포함) 매매가13억7천만원

**★임 대★**

- \* 동구 운림동 중심사 버스중점 아웃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랑 198㎡ 풀원비 보증금3천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룬6개(금) 현성업종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성업종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만원 시비권있음
- \* 서구 백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점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있음 (식당적합, 모던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 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융자액 14억

☎010-3605-7814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정려 예식장, 투지회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10-3753-0033**

###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울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